

발표 I

아시아 교회와 도시 선교 :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안인섭 교수 In-Sub Ahn

총신대 /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장

I. 들어가는 글: 문제제기

현대의 선교는 경제, 사회, 정치, 세속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 안에서 도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 성경에서 제시했던 선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이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선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11세기에 중세 도시가 형성되자 도시선교를 지향하는 새로운 수도회인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 등 탁발수도회가 등장하여 중세 교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이었던 도시선교 그룹은 16세기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개혁파였다. 개혁주의는 도시 중심의 중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전 유럽으로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제네바를 포함한 스위스와 독일의 여러 도시들, 특히 16세기 이후 17세기에 세계 무역을 주도했던 네덜란드의 도시들이 모두 개혁파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도시선교의 흐름은 18세기 미국 기독교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선을 아시아로 돌리면 매우 복잡해진다. 아시아 교회는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아시아의 역동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800년에 세계 인구는 9억 7,800만 명이었고, 그 중 2억 800만 명(23.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이 2억 800만 명의 기독교인 중 86.5%가 백인이었다. 윌리엄 캐리가 1783년에 인도 캘커타로 여행했을 때, 아시아 인구는 6억 2,0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은 0.2%일 것으로 추산된다.¹

그렇지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로부터 200년 후인 21세기 현재, 아시아는 80억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현재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제3세계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 기독교는 (물론 질적으로는 훌륭한 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급격히 양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특히 인구 연령대가 젊다. 그러므로 향후 아시아를 향한 선교를 논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아시아라고 하는 특수성(Particularity)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선교라고 하는 보편성(Universality)이다.²

도시선교라는 주제를 전통적인 신학 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로는 먼저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가지고 도시 선교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³ 실제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Civitas Dei)로 묘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이래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자기 사랑적인(amor sui)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amor Dei)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시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자면 단연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행했던 도시선교를 꼽을 수 있다. 칼빈의 제네바 목회는 한 마디로 칼빈의 도시목회 혹은 문화목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인 영역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관심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제네바에 몰려온 종교적 난민과 이민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1 Ro Bong Rin, *Asian Church History*, (Yong-In: Kingdom Books, 2024), 6-7.

2 안인섭,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1차 정기 컨퍼런스* (2023.9.16.), 5-6.

3 채혁수, “도시선교와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어거스틴의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4 (2021), 735-765.

4 어거스틴의 신국론은 다음을 보시오, Augustine, *De Civitate Dei (DCD)* [trans. City of God], Ed. B. Dombart and A. Kalb, CCL 47-48, Turnhout: Brepols, 1955.

을 향한 칼빈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목회는 제네바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다.⁵ 칼빈의 종교개혁의 과정에서는 항상 빈민이나 여성 등과 같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관심과 복지적 실천이 뒤따랐다. 이러한 이해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도시적 환경에서 선교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⁶ 더 나아가 칼빈 시대에 총제적인 변화를 이룩했던 도시 제네바는 칼빈 이후에도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⁷

필자는 지난 제1차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교회 정책을 위한 개혁주의적 신학의 기초로서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⁸ 이것을 기초로 하면서 본 논문은 21세기 아시아라는 구체적인 컨텍스트(context) 안에서 어떻게 도시선교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을지, 도시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역사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6세기 칼빈의 제네바의 도시선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팀 켈러의 도시선교의 모델 : 칼빈의 제네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도시선교의 흐름을 주도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 뉴욕의 리더 교회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팀 켈러였다고 말하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상품적으로 전락시키고 빈익빈의 문제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대 도시인 뉴욕에서 복음 전도와 구제의 사역을 진행했던 팀 켈러는 복음이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복음이 도시를 구속해야 하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도시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도시선교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⁹ 물론 그의 신학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며, 그의 신학이 전형적인 서양, 미국, 뉴욕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¹⁰ 그는 선명한 복음 이해에

5 성석환, “칼뱅의 제네바 도시목회와 한국교회 ‘문화목회’의 실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91집 (2014), 159-184.

6 봉원영, “도시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종교개혁과 현대 기독교의 도시 선교적 방향성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11호 (2021), 436-449.

7 최용준,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3) (2018), 323-351.

8 안인섭,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1차 정기 컨퍼런스 (2023.9.16.).

9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치』 (서울: 두란노, 2016), 188-511.

김성욱, “팀 켈러(Tim Keller)의 도시선교사역 연구” 『선교신학』 74집 (2024), 15-19.

10 양현표, “팀 켈러의 목회론,” 『갱신과 부흥』 29호 (2022), 309-343.

기초한 개혁주의 관점에서 현대 교회를 향한 역동적인 목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팀 켈러의 스승이자 총신에 교수 선교사로도 활동했었던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간하배 (Harvie M. Conn) 교수는 미국의 도시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언어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미국의 산업 도시가 발전하는 가운데, 교회는 실패했다. 교회는 태도와 사고 방식 면에도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고, 기업가적인 정신과 제후하고 있었다. 교회는 도시에서 부상하는 중상류층에 순응했으며 새로운 근로 계층으로부터는 소외되었다.¹¹

간하배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이 세상의 제도화된 죄와 공적인 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성령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의 표적이요 구조적 정의의 담지자라고 정리해 주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현대 도시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1) 기독교 시민 교양을 회복하고 실천하며 2) 시장 경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3) 돌봄과 자선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며 4) 건강한 시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¹²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하배나 팀 켈러 모두 복음 전도와 문화 변혁, 그리고 사회봉사를 총체적으로 강조했던 도시선교의 방향성은 오늘 현재 아시아 도시 선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팀 켈러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저명한 칼빈과 베자 연구 학자인 스캇 매니치(Scott M. Manetsch)가 연구했던 제네바 목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¹³ 이 제네바 목사회를 통해서 제네바의 목회자들이 중세적인 영성으로부터 개혁주의적인 영성으로 개혁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다. 이런 연구에 기초해서 팀 켈러는 칼빈의 실천신학을 목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강의 제목 자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의 강의 제목은 “팀 켈러는 존 칼빈의 목회적 실천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였다.¹⁴ 결국 팀 켈러가 강조하는 도시선교를 위한 중요한

11 간하배, “도시화와 개인화 현상” 『상답과 선교』 2권 3호 (1994), 41.

12 봉원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와 기독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권 4호 (2022), 585-588.

13 Scott M.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160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이 연구는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 개혁과 목회자 모임의 모델』이란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된 바 있다.

14 Tim Keller, “What Tim Keller Learned from John Calvin's Pastoral Practices” TGC National Conference (2017). 이 강연의 동영상은 다음을 보라. <https://youtu.be/Eo0Mb5-9pV8>

전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제네바의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적 목회 실천(formative practices)”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팀 켈러는 자신이 리더며 교회에서 은퇴한 후에는 칼빈의 제네바의 목회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팀 켈러에 의하면 이 형성적 목회 실천에 근거할 때 칼빈의 제네바는 세가지 통찰을 제시해 준다.

-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은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 둘째는 수도원적 실천의 중요성이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수도원주의는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도원적 삶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소수의 성직자만 수도원적 삶을 사는 성직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원주의자들이 행하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원적 실천의 보편화를 강조했다.
- 셋째로 종교개혁시대 제네바에서 실행되었던 목회자 영성 형성은 현대의 목회자 훈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생에 걸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팀 켈러는 그의 목회신학과 도시선교의 모델인 칼빈의 제네바의 어떤 특징을 주목했을까? 팀 켈러는 자신의 강의에서 칼빈의 제네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첫째는 강해설교다. 칼빈 당시 제네바에서 드러졌던 예배와 이때 칼빈이 행했던 강해설교의 강화가 칼빈의 도시선교의 기초를 형성했다. 따라서 제네바 시민들은 매일 강해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선교적 삶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둘째로 교리교육이다. 제네바에서 여러 차례 드러졌던 예배 가운데 칼빈은 교리교육적 예배도 드러지도록 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교리문답에는 물론 칼빈의 개혁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 셋째는 시편에 대한 강조다. 심지어 칼빈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프랑스로 시편 찬송가로 만들어 예배 때 부르도록 했고 외우게 했다.

– 넷째는 성찬에 대한 강조다. 성찬은 예배뿐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 형성과 성도들의 영성 형성의 방편으로도 중요하게 실천되었다. 칼빈은 성찬을 매주 실행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로는 1년에 4번 성찬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찬이 영성 형성에 중요한 이유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은 서로를 점검하며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성도들은 성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했고, 또 교회의 장로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삶을 나누고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교리교육을 다 받은 성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찬의 깊은 영적 의미를 묵상하며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다.

– 다섯째는 매일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다.

– 여섯째는 목회적 사역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제네바는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에 장로들이 목양적 사역을 실행했다. 또한 제네바 목사회(Companion of the pastors)는 제네바 뿐만 아니라 근처의 시골 목회자도 포함하여 20-30여명이 참석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는 일반적인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하여 성경주해와 토론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 (대략 9:30-12:00)에는 목회자들만 남아서 설교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후에는 이 모임이 노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제네바는 그 역동적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시대에 교리적 통일성과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설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천했던 목회적 내용은 성경의 원칙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혁할 뿐 아니라 제네바라는 세속적인 도시를 강력한 영적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고, 팀 켈러는 이것을 자신의 도시선교의 중요한 역사적 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아시아의 도시선교를 생각할 때, 물론 아시아라는 독특한 역사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면서도, 칼빈의 제네바 목회가 아시아 도시선교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칼빈의 제네바의 도시선교¹⁵

1. 배경

1) 일반적 배경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의 결과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토지 중심에서 통상과 교육이 중요시되어 새로운 부의 원천이 생겨났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계급 즉 부르주아(Bourgeoisie)가 등장하게 되었다. 부르주아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고위 귀족에 대항하여, 국왕과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

15-16세기 독일은 각 영주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 스위스 지역에서 지방정부들이 독립국가라고 보일 정도의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착 요인 중의 하나는 많은 도시들의 자치권은 도시가 종교개혁을 지지했을 경우, 그 도시가 종교개혁을 수행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각 도시들 간의 자치권의 요소들은 후에 종교개혁을 진행하거나 반대하는 도시들 간의 연합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종교개혁의 수용은 도시간의 연합관계를 깨는 경우가 될 수도 있었고, 또는 다른 연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되었다.¹⁶

2) 16세기 제네바

칼빈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1536년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세상을 떠난 1564까지 제네바에서 사역을 감당했다. 물론 중간에 잠시 스트라스부르에 3년(1538-1541)정도 체재하기는 했지만 거의 평생의 활동은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세기 초의 제네바는 사보이인들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가톨릭 주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 정치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이 서로 맞물려 있었던 전형적인 유럽의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으로 프랑스의 신앙적 영향도 간접으로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당시의 제네바 사람들은 사보이인들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력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사보이와 같은 편이었다. 따라서 제네바는 종교개혁적인 흐름과 독립의 의지가 함께 묶여서 진행되고 있었다. 1527년경부터 개신교적인 신앙과 제네바 민족주의가 맞물려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보이인

15 이 챕터에서 다른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필자의 다음 연구를 보시오, 안인섭, "칼빈의 기독교교육 사상이 제네바시 공동체에 미친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48 (2016), 183-214.

16 안인섭, 『한권으로 읽는 교회사』 (서울: GMS, 2022), 182-184.

17 안인섭, 『칼빈』 (서울: 익투스, 2015), 235-241

들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곧 로마 가톨릭 신앙을 떠나는 것이고, 제네바에 개신교 신앙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¹⁸

종교개혁이 맹렬하게 진행되면서 교회 소유지와 재산이 1534년 9월부터 제네바 시의 소유가 되었다. 드디어 로마 가톨릭의 미사도 1535년 10월 15일부로 중지되었다. 결국 제네바의 가톨릭은 1535년 연말로 수도원 재산과 성직자 계급 제도를 폐지하면서 제네바 시는 개신교 자유 도시가 되었다. 이것이 칼빈이 제네바의 부름을 받을 당시의 제네바의 사회적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제네바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곧 제네바 국가의 긴요한 현안이기도 했다. 따라서 제네바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도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칼빈은 이런 제네바에서 신앙의 지도자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당시 제네바 사회의 변혁은 칼빈의 설교를 통한 방법과 동시에 칼빈이 수립한 콘시스토리(Consistory)를 통한 강력한 교육적 기능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요컨대 16세기 제네바는 로마 가톨릭과 사보이 공국에 저항하면서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다. 물론 베른이 제네바를 식민지화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제네바는 독립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제네바의 새 정부는 무거운 전통에 눌려 있지 않은 젊은 정부였기 때문에 칼빈이 추구하던 기독교 신앙이 어렵지 않게 수용되어 독특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

16세기 제네바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525년부터 제네바는 교회와 사회 모두에서 근원적인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가 1546년을 지나면서 제네바 교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기 시작했으며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1555년 선거에서 칼빈의 지지하는 4명의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제네바는 기독교 신앙과 제네바 사회가 통전적으로 묶일 수 있게 되었다.

2. 신학적 토대

칼빈의 신학은 그가 제네바를 기독교적 공동체로 변혁시키기 위한 토대였다. 특히 칼빈은 제네바 도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갔다. 개혁

18 W.G. Naphy,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In *The Reformation of the parishes: The ministry and the Reformation in town and coun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113-132. W.F.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원저 1971 출판), 35-49.

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안으로는 개인적인 죄용서 및 구원과 관계되는 교회 중심의 영적인 나라와, 밖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이런 신학적 기초 위에서 특별히 본 세미나의 주제인 도시선교와 관계해서 칼빈의 제네바 도시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나님 나라와 공적 사회

칼빈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의 방향이다.²⁰

칼빈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니교가 육신을 불결하다고 본 것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성별하신 몸을 언급하면서(고전 3:16), 육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도 주를 섬기라고 했던 바울을 인용하면서(고전 6:20) 몸으로도 주를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몸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칼빈은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나가는 발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²¹ 칼빈은 인간의 육체는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최후에는 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육신의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며,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²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단지 제네바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제네바 도시 안에서도 나타난다.

19 안인섭,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1차 정기 컨퍼런스 (2023.9.16.), 9-15.

20 Calvin, *Institutes*, 3.19.15, CO 2, col. 623, “ne quod de spirituali libertate docet evangelium, perperam ad politicum ordinem trahamus, ac si minus secundum externum regimen humanis legibus subiicerentur Christiani, quia solutae sunt coram Deo ipsorum conscientiae: quasi propterea eximerentur omni carnis servitute, quod secundum spiritum liberi sunt,”

21 Calvin, *Institutes*, 3.25.7-8, CO 2, cols. 736-740.

22 Calvin, *Institutes*, 3.25.8, CO 2, cols. 738-740.

2) 신앙과 삶의 통전성

칼빈의 기독교 신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아는 것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²³ 기독교 신앙 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 성경인 것이다.²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유지시켜 주는 근간이 된다. 칼빈에 의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인간은 성경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칼빈의 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신앙과 삶, 혹은 신학과 경건의 통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신앙은 그저 지적으로 아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다. 보다 통전적인 사고가 요청된다. 칼빈은 이 점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⁶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 교육은 신학적 구조적인 면에서 제네바 사회와 직접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1) 이웃을 섬기는 삶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고 나보다 남을 더 수용해야 할 이유로서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를 제시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²⁷ 이웃의 삶을 돌아보는 삶은 곧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²⁸ 칼빈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 때 그는 자아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아를 전적으로 바쳐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까지 강력하게 기술하고 있다.²⁹

기독교 신앙이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이 정도로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몸의 지체는 그 자체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기관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

23 Calvin, *Institutes*, 1,6,1.

24 Calvin, *Institutes*, 3,2,6.

25 Calvin, *Institutes*, 1,7,6; 1,9,6

26 Calvin, *Institutes*, 3,6,4.

27 Calvin, *Comm. Gen.* 1: 28.

28 Calvin, *Institutes*, 3,7,4.

29 Calvin, *Institutes*, 3,7,5.

므로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교우들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돌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³⁰

(2) 청지기 정신

위에서 우리는 개인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웃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빈은 한 층 더 센 목소리로 그리스도인들의 소유하고 있는 은사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타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위탁하셨다고 보는 것이다.³¹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 조건은 바로 사랑이다.

이때 칼빈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란 자아와 타인 모두의 유익에 부합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서 청지기 정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3) 거룩한 도시

칼빈의 사상과 제네바 시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신학적 개념으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도시를 제시할 수 있다. 칼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다고 보았다. 개인의 영적인 생활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칼빈은 제네바 안에서 권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타락하여 오염된 개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오염을 막아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강조하는 권징은 “거룩한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칼빈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칼빈이 볼 때 참된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이행되어야 한다.³² 칼빈은 더 나아가 권징을 교회의 열쇠의 권세와 영적 재판권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30 Calvin, *Institutes*, 3, 7, 5.

31 Calvin, *Institutes*, 3, 7, 5.

32 Calvin, *Institutes*, (1536), II, B, 29.

도리가 교회의 영혼인 것처럼, 권징은 몸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 자리를 지키도록 해 주는 근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³³ 칼빈은 권징이 교회 구성원들 간의 교제의 끈을 강화시켜 준다고 믿었다.³⁴

제네바에 이 컨시스토리가 세워진 것은 1541년 “교회 규칙(Ecclesiastical Ordinances)”에 근거하여 1542년에 칼빈이 요청함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 컨시스토리는 영향력 있는 교육 및 상담 기구였으며 더 나아가 법정과 같은 기능까지 했다.³⁵ 제네바의 컨시스토리 기록은 제네바에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칼빈이 볼 때 사회의 발전은 제네바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은 사회와 관계를 갖는 실천적인 영역이 된다.³⁶ 따라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징권이 교회에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³⁷ 제네바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칼빈은 제네바에 컨시스토리를 세워 권징을 통해서 제네바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³⁸

3. 제네바 도시선교의 구체적 실천

칼빈의 사상은 16세기 제네바 도시를 기독교적 공동체로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네바라는 도시국가적 상황 속에서 교회와 국가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칼빈에게 제네바가 기독교 공동체로 수립되는 것은 당연한 목표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드러난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에서 출발했다. 이 신학은 신앙과 삶,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배타적으로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사회적으로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칼빈의 사상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실체화될 수 있었는지 중요한

33 Calvin, *Institutes*, 4.12.1.

34 W. Mueller,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In *The Reformation of the parishes: The ministry and the Reformation in town and coun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4), 116.

35 R.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5), 1–6.

36 W.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ans. W. Heynen (Grand Rapids: Eerdmans, 1981), 223.

37 Calvin, *Institutes*, 4.10.27.

38 Calvin, *Comm. Acts*, 21:18.

질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교육 기관과 “컨시스토리”라는 삶의 교육 기구를 수립하여 그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다.

1)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이 제네바에 초청되어 개혁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 13세기에도 제네바에는 열악한 학교들이 있었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반짝 공립학교가 수립된 바 있었지만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교육이 시작된 것은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수립된 1559년 이후다.³⁹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을 충분히 받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적 사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 학교는 이후 네덜란드와 독일과 스코틀랜드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창립하기 이전인 1556년에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는 중간에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하여 이곳의 아카데미 학장이었던 장 스투름을 만나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다.⁴⁰ 그러나 제네바 아카데미의 이념은 이미 1541년의 교회령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교회령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언어와 인문교육을 받아야만 목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목적을 위해서 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네바 아카데미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독교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초중등 과정으로서의 스콜라 프리바타(schola private)와 고등 과정인 스콜라 푸블리카(schola publica)로 조직되어 있었다. 스콜라 프리바타 과정은 로마 시대의 라틴학교와 같이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 등과 논리학 변증학 문학 등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고급 과정이었던 스콜라 푸블리카에서는 비록 당시 로마 교황청이나 신성로마제국과 무관했기 때문에 학위를 줄 수는 없었지만, 히브리어, 그리스어, 신학, 그리고 예술 등에 교수좌가 있어 수준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이 스콜라 푸블리카 과정은 카린 막이 강조한 것처럼 지적 훈련과 함께 도덕적인 훈육이 병행되고 있어서 유럽의 개신교 대학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⁴¹ 이 두 과정은 교육 개혁에 있어서 인문주의에 대한 칼빈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보여주

39 조성국,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0, 116-119.

40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Expanded edition, an introductory guid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41 K. Maag., *Seminary or university? The Genevan academy and Reformed higher education, 1560-1620* (Aldershot: Ashgate, 1995), 8-84.

고 있다.⁴²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살펴보면 칼빈이 지향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네바 교회를 이끌어 갈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학 공부에서 인문학적 훈련이 본질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이며, 결국 사회 속에서 전인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양성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기독교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성경과 교회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까지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교육은 제네바 도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컨시스토리

기독교 교육 사상을 제네바 도시와 매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장치는 컨시스토리였다. 제네바의 종교개혁 운동은 정치 및 법과 종교의 측면 모두에서 적용된 것이었다. 컨시스토리는 16세기에 종교개혁 도시가 된 제네바 시민들의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독교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매체였다. 컨시스토리에서 진행되었던 권징은 교육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제네바 도시 삶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 컨시스토리는 1541년 칼빈의 '교회 규칙서'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기관이었다. 말하자면 모든 제네바 사람들이 설교와 법령들에 표현된 새로운 개혁주의 가르침을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다.⁴³ 이런 의미에서 컨시스토리는 칼빈의 기독교 사상을 제네바 도시 전체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55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이 컨시스토리는 판단을 위한 심리 재판소로, 상담의 봉사 기관으로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했다. 말하자면 16세기 제네바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차원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 이 컨시스토리였다. 컨시스토리는 당시 제네바의 교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까지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결백한 사람,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실제적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 컨시스토리 기록들은 16세기 중반기 개신교 도시국가가 된 제네바 시민들의 모든 가정 생활과 그 삶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이다. 특히 매년 이 컨시스토리에서 다루어진 수 백 개의 사례들 가운데 사실

42 오형국,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213-257.

43 안인섭, 『칼빈』 (서울: 익투스, 2015), 221-233.

상 절반 이상이 가정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제네바 시민들의 신앙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인 컨시스토리는 칼빈이 직접 1541년 교회법을 통해 창설한 것이었다. 이 컨시스토리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의 훈육(discipline)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네바 시민들이 진정한 기독교적 믿음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스트라스부르그로 옮겨 가 있었는데, 제네바가 다시 그를 초청했을 때 이 컨시스토리와 같은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에게 있어서 컨시스토리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컨시스토리는 약 2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그 해에 선임된 네 명의 행정장관 중의 한 명이었다. 컨시스토리의 멤버들은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제네바와 인근 마을들에서 안수 받은 교회의 목사들이다. 칼빈은 이들의 의장(moderator)으로 사역했다.

다른 하나는 '장로'(elders)라고 지칭되었던 12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매년 2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목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었다. 집사와 장로 둘 다 모두, 대부분의 기존의 다른 위원회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소위원회에 의해서 준비된 과정을 통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두 개의 조직체를 위해서 목사들은 후보자를 준비하는데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컨시스토리는 일주일에 1회, 목요일 만났으며, 회기 동안 종종 몇 시간을 넘여가기도 하였다.

컨시스토리는 초창기에는 주로 잔재해 있는 가톨릭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꾸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당하지 못한 사업의 관례들을 뿌리 뽑으려 하였고, 또한 정부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경시하는 것들을 근절하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컨시스토리에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제네바에서 살고있는 모든 시민들이 성실하게 가정에서 충실한 삶을 살도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개혁 당시의 대부분의 도시들과 같이 제네바도 매춘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에 매춘은 폐지되었다. 전문적인 소수의 매춘부들은 아주 조용히 거래하였으며, 다른 공동체로 떠나도록 요구받았고 그들의 여행경비를 위해 약간의 돈이 지불되기도 하였다.

컨시스토리에서 다룬 사안들을 중심으로 1546년, 1552년, 그리고 1557년을 비교해 보면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에서 목사들과 장로들이 함께 교인들의 삶을 지도한 것의 특징을 알 수 있다.⁴⁴ 첫째로,

44 Jr, J. Witte and R. Kingdon, *Sex, marriage and family in John Calvin's Geneva* (Grand Rapids: Eerdmans, 2005), 75-76.

컨시스토리에서 다룬 사안들의 약 60%가 성, 결혼, 가정에 대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영적인 엄격함이 후에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546년에는 대부분의 일반적 구제책은 당사자가 더 잘하도록 권면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짧은 훈계로 끝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역은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로, 컨시스토리에서는 적어도 회개와 화해를 위한 가능성(*locus poenitentiae*)을 내포하는 무거운 금지의 사용을 기꺼이 시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컨시스토리는 그 삼 년의 각각의 사안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 삼 년의 예에서 가정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도시의 인구 증가와 장로들이 컨시스토리에서 다룬 일들의 증가하는 숫자와 비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컨시스토리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즉 제네바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장로들의 사역에 의해서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교리교육을 내면화하여 삶에 적용시켰으며, 새로운 학교들, 커리큘럼들, 수업도구들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컨시스토리는 사생자, 유기된 사람과 학대 받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학대 받는 부인들과 가난하게 된 과부들에게 새로운 보호처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3) 제네바 교회와 사회 복지 :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구호기금

16세기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구체적 사례로서 제네바 도시 국가를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곳의 개혁은 매우 급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세기에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제네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들어 난민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네바는 가톨릭을 후원하는 이탈리아의 사보이로부터 개신교를 주창하는 도시 국가로 이제 막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했기 때문에 박해 받던 개신교도들은 난민이 되어 이 제네바로 모여들었다. 이것이 칼빈이 제네바의 부름을 받을 당시의 제네바의 사회적 환경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제네바에서, 개혁 교회가 그 목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첫째, 이 장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거 발생한 프랑스 난민들이 인접한 제네바로 몰려왔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칼빈의 목회 환경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을 목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

다. 칼빈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의 신념에 따라 성경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구체적인 목회적 적용을 하게 되었다.

둘째, 제네바 도시 국가 안에서 교회가 종교개혁의 신학적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사회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두 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즉 사회 복지 활동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고, 동시에 국가의 의제이기도 했다. 제네바의 자선은 국가의 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신학적으로 보면 개혁주의의 자선 사업은 필연적으로 교회론적인 문맥에서 찾아진다. 이점은 사회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제네바의 모델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칼빈의 이상은 좀 더 넓게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제네바에서 최고의 설교적 영향력을 끼쳤고 이와 함께 콘시스토리의 기능을 통해 사회적 윤리적 기능을 형성하였다. 게다가 칼빈과 시 당국은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과 의무교육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옛 교회의 물건들은 종합구빈원(Hôpital Général)에 조달하고, 프랑스 구호 기금(Bourse Francaise)을 수립함으로써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제네바에서는 목회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게 되었다. 이 체계는 개혁된 사회가 현실을 만든다는 칼빈의 비전을 보여 준다.⁴⁵

요약하자면, 16세기 칼빈이 목회를 감당할 때의 유럽 사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사회적 불안과 가난과 질병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신학으로 무장하면서 등장하고 있었던 개신교회가 실제로 활동을 펼쳐야 하는 삶의 환경이었다. 특히 칼빈은 이런 제네바의 상황 속에서 그 목회적 사역을 감당했다. 따라서 칼빈 당시의 제네바에서 사회 복지는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 제네바에서의 칼빈은 양과 질에서 큰 목회적 변화를 주도했다.

IV. 서양의 아시아 진출의 역사

이상에서 도시선교에서 칼빈의 제네바가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도시선교 모델이 아시아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

45 W. G. Naphy,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121–128.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아시아의 역사적 선교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⁴⁶

아시아는 드넓은 대륙에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많은 독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획일화되고 통일된 아시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지역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가운데 공통적 특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16세기부터 아시아에 대한 서양의 개입은 아시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서양의 아시아 진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첫째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시아에 진출한 1500-1650년의 시기다.
- 두 번째는 네덜란드 시대로서 1595년부터 1700년 사이에 해당된다.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적 갈등은 아시아 선교지에서도 지속되었다.
- 세 번째는 영국의 시대이며 1800-1940년대라고 할 수 있다.
- 네 번째는 프랑스 시대인데 1664-1954로 잡는다. 특히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배했다.
- 다섯째는 미국 시기인데 1900-1945 기간이다. 19세기가 팩스 브리태니카라면 20세기는 팩스 아메리카노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일본 시대이며 1941-1945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서구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었다. 그러나 많은 거대한 문제들을 만날 수 밖에 없었다. 이 독립 국가들이 국가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가지 있었다.

- 첫째는 모든 분야에서 훈련된 국가 지도자가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것이다.
- 둘째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은 여전히 서구 국가에 의존했었다. 대다수의 아시아인들은 부유한 서양 국가들에 비해 가난했다. 공장, 농업 기술,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금과 과학적 지식이 서양

46 Ro Bong Rin, *Asian Church History*, 22-28.

에서 절실히 필요했다. 국가 교회는 교회와 교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 선교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했다.

- 셋째는 서양 선교사의 급속한 증가와 그 수의 급격한 감소가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V. 나오는 글

: 아시아 도시선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각 아시아 국가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 다양하며 독특하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아시아 문화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아시아 교회를 아는 것은 아시아 도시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몇 가지로 나누어 아시아의 특징을 살펴보자.⁴⁷

첫째로 아시아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선교는 그 국가의 지배적 사회구조를 형성했던 종교에 대해 신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학적이고 경제학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아시아 도시선교에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계층적 사회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전통 사회와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나서 그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노봉린 교수는 필리핀과 한국을 좋은 사례로 제시한다. 필리핀과 한국이라는 두 아시아 국가는 국가적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필리핀은 2022년에 로마 가톨릭 인구가 81.45%, 개신교도가 8.2%였다. 지배적인 로마 가톨릭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은 개신교도 인구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의 하나가 되었다.

셋째는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의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다.

47 Ro Bong Rin, *Asian Church History*, 28-32.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산업화가 되고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도시선교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향한 깊은 신학적 성찰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아시아의 전통 종교는 부패와 뇌물과 같은 도덕적 타락에 유약해 왔다. 아시아의 기존의 종교들은 기복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권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통받아 왔다. 따라서 아시아 도시선교에서는 사회정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고려가 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교회가 도시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 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며,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아시아의 도시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 일반 역사와 아시아 기독교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좌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시아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변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선교 역시 보편적인 차원에서 도시선교의 맥락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